

‘우장춘 박사 서거 67주기’ 고인 뜻 기려

농촌진흥청, 일본 거주 유가족 10명 초청... 묘소 참배 · 제사 · 한일 원예산업 교류

한국 근대 농업과 원예·종자산업 발전에 큰 발자취를 남긴 우장춘 박사의 서거 67주기를 맞아 유가족들이 한국을 찾아 고인의 업적과 정신을 기린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우장춘 박사 서거 67주기인 8월 10일을 맞아 일본에 거주하는 우 박사의 유가족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묘소 참배와 전문가 세미나 등 다양한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1월 마련된 유가족과의 교류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후속 행사다. 우장춘 박사의 농업·원예 분야 업적을 되새기는 한편 한국과 일본의 원예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간 원예산업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장춘 박사는 우리나라 원예·종자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농업과학자로 평가받는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의 초대 원장을 맡아 국내 원예 연구의 기틀을 세웠으며, 채소와 화훼 품종 개량 연구를 이끈 선구자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우장춘 박사 서거 67주기인 8월 10일을 맞아 일본에 거주하는 우 박사의 유가족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하고, 수원 여기산에 있는 우장춘 박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제사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한국을 찾는 유가족은 우 박사의 손자와 증손자 등 모두 10명이다. 우 박사가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후 일본에서 성장하고 연구 활동을 이어간 인연으로 현재 유가족들도 일본에 거주하고 있다.

유가족들은 10일 수원 여기산에 있

는 우장춘 박사의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제사에 참석해 고인을 추모했다. 이후 농촌진흥청장과 환담을 갖고 우 박사의 업적과 한일 원예산업 교류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11일에는 우 박사의 손자인 스나가 토시하루 씨가 국립원예특작과학

원의 전문가 초청 연수회에 연사로 참여했다.

스나가 씨는 ‘최근 일본 화훼시장(분화·모종) 동향’을 주제로 발표하고 일본 현지 화훼시장에 대한 최신 정보를 국내 연구자와 산업 관계자들에게 공유했다.

스나가 씨는 일본의 원예 전문기업 에프에스 블룸(FS Bloom)에 근무하고 있다. 에프에스 블룸은 생활용품·실용제 기업 후마키라의 자회사로, 2021년 신젠타 재팬의 일본 내 화훼 사업을 승계해 신젠타 플러스 품종을 일본에서 독점 취급·공급하고 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세미나 이후 유가족들과 함께 홍보관과 치유농장 등 주요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우리나라 원예 연구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향후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12일 부산 동래구에 있는 우장춘기념관 등을 방문한 뒤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수향·홍슬·마루황도’ 국산 황도 3종 출격

농촌진흥청, 개발... 8월 상순~9월 상순 잇달아 수확해 단계적 보급

늦여름 황도 복숭아를 향과 식감, 크기에 따라 골라 먹을 수 있는 국산 신 품종이 잇따라 선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부터 9월 초까지 차례로 수확하는 황도 시장을 겨냥해 향과 식감, 크기를 차별화한 ‘수향’, ‘홍슬’, ‘마루황도’ 3품종을 단계적으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4 농업전망’에 따르면 소비자의 복숭아 선호도는 황도 40%, 천도 33%, 백도 27%로 황도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개발된 세 품종은 수확 시기를 달리하면서 향과 식감, 크기까지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농가는 출하 시기를 분산할 수 있고 소비자는 자신의 취향에 맞는 황도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향’은 세 품종 가운데 향이 가장 뛰어난 품종이다. 8월 상순에 수확하는 중생종으로 특유의 달콤한 향이 강하며 당도는 13.5브릭스(°Bx), 평균 무게는 278g 정도다.

‘홍슬’은 쫄쫄한 식감이 강점이다. ‘수향’과 마찬가지로 8월 상순에 수확하는 중생종으로 둥근 모양에 붉은색이 잘 드는 것이 특징이다. 당도는 12.0브릭스 정도이며 평균 무게는



235g 안팎이다.

‘마루황도’는 크기와 생산성이 강점인 품종이다. 9월 상순에 수확하며 평균 무게가 354.8g으로 세 품종 가운데 가장 크다. 당도도 12.9브릭스에 달한다.

세 품종의 수확 시기는 8월 상순부터 9월 상순까지 이어진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출하시기를 분산할 수 있고, 소비자는 늦여름부터 초가까까지 향과 식감, 크기가 서로 다른 황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이들 품종은 주요 복숭아 산지의 실증 농가를 중심으로 시범 재배와 출하가 진행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현장 연구를 통해 지역별 생육과 품질,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재배기술을 보완한 뒤 보급 지역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상근 기자

지역 일자리 담당자 실무역량 강화 나서

전북자치도, AI 활용 사업기획 실습 · 전북형 일자리 사업 고도화 모색

전북특별자치도가 급변하는 고용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사업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을 마련했다. 전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전북인자위·설치기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는 11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시·군, 일자리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전북지역 고용아카데미’를

개최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단순한 사업 집행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정책 기획과 현장 문제 해결에 필요한 사업 설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커리어 플랫폼 이호영 대표가 ‘AI를 활용한 사업기획 작성 실무’를 주제로 강연했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업기획서 작성

과정에 AI 도구를 활용하는 실습을 진행하며 사업기획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논리에 기반한 문서 작성 방법을 익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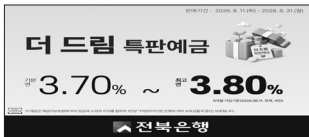
이어 한국능률협회 김현재 전문의원이 ‘지역일자리 사업 우수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전국 일자리대상 수상 사업을 비롯한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북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지역협력과 박태균 과장이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아카데미는 정책에 기반한 사업기획과 AI 활용 문서와 역량을 높여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또 전국 우수사업 사례를 분석해 전북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고도화 방향을 모색하고,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북특별자치도, 시·군, 수행기관 간 공동된 정책 이해를 높여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도 의미를 뒀다.

/오상근 기자



전북은행, 더드림 특판예금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고객들의 안정적인 자산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8월 한정 특별판매 예금상품을 선보인다.

전북은행은 오는 31일까지 ‘더드림 특판예금’을 한정 판매한다고 밝혔다. ‘더드림 특판예금’은 개인과 개인사업자, 일반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예금 상품이다. 특판예금 가입 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면 연 0.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추가된다.

가입기간에 따라 9개월 상품은 기본금리 연 3.70%에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고 연 3.80%의 금리를 제공한다. 12개월 상품은 기본금리 연 3.65%로 최고 연 3.75%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가입금액은 계좌당 100만원 이상이며, 고객 1인당 가입한도는 최대 50억 원이다. 총 판매한도는 1,500억원으로 한도가 소진될 경우 판매 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북지역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공영홈쇼핑 제품 코칭 상담회가 다시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장상만)은 전북지역 우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9월 1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열리는 ‘2026년 공영홈쇼핑 제2회 전북지역 혁신기업 제품 코칭 상담회’ 참여기업

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는 지난 5월 7일 열린 제1회 코칭·상담회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마련됐다. 제1회 상담회에는 모두 39개 지역 기

업이 참여했으며, 심사를 통해 5개 기업이 방송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선정 기업들은 오는 11월 공영홈쇼핑을 통해 전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방송·판매할 예정이다.

오는 9월 15일 열리는 제2회 상담회에는 공영홈쇼핑 전문 상품기획자(MD)들이 직접 참여한다.

참여 기업들은 TV홈쇼핑을 비롯해 라이브커머스

와 온라인몰 입점에 필요한 현장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기업에는 홈쇼핑 방송 수수료 할인, 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 라이브커머스 판매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오상근 기자

이벤트 참여를 위해 11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바이오진흥원 본관 앞 주차장에 마련된 헌혈 전용 버스에서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며 생명 존중과 이웃 사랑의 뜻을 함께 나눴다.

특히 여름철에는 휴가와 방학 등으로 헌혈 참여자가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캠페인은 지역 혈액 수급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바이오진흥원, 헌혈 캠페인 펼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이 여름철 혈액 수급난 해소와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헌혈 캠페인을 펼쳤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하절기 휴가철과 방학 등으로 발생하는 지역 내 혈액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도 하절기 임직원 생명 나눔 릴레이 헌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벤트 캠페인은 바이오진흥원 본관 앞 주차장에 마련된 헌혈 전용 버스에서 진행됐다. 임직원들은 자발적으로 헌혈에 참여하며 생명 존중과 이웃 사랑의 뜻을 함께 나눴다.

특히 여름철에는 휴가와 방학 등으로 헌혈 참여자가 감소하면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캠페인은 지역 혈액 수급 안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상근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